"가벼운 경전공부로 불교 저변 확대"

Interview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공직에 있는 일반인이나 불교입문자들이 불교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다가갈 수 있도록 불교공부모임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각 행정기관마다 불자회가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선은 가벼운 마음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제10대 회장인 김상규(56) 감사원 감사위원이 그리는 신행조직의 저변확대 방안이다. 김 회장은 7월 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취임법회서 공식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각 부·처·청의 불교공부모임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법회 이후 만난 김 회장은 "공불련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왕도는 없는 것 같다"면서 "다만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공부를 하려면 선생님이 필요하다. 즉 그만큼 법회가 자주 열려야 하고, 이는 불심이 깊어지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공무원불자들의 불교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역시 30여 년 전 경전을 쉽게 풀이한 책을 보며 감명 받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30년 전에 〈알기 쉬운 반야심경〉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참 좋았다. 불교교리의 핵심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돼 있었다. 불교경전은 A to Z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성경과는 달라 사람들이 부담을 갖기 십상"이라며 "그만큼 불교의 매력에 빠져드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불련 전체법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공무원불자들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부·처·청 불교공부모임으로
부담감 낮춰 회원 확대 유도
매월 공불련 전체법회 계획

김 회장은 "개인적으로 불심(佛心)이 시대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정치가 쑨원은 '행이지난(行易知難)'을 강조했다. 앎을 얻는 것은 어렵지만 앎에 이르면 그것을 행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뜻"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역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불심을 잘 닦으면 사회에 만연한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타종교에 비해 불교가 갖는 유연성이 세상을 맑히는 중요한 방편임을 강조하면서 불자로서 발심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은 종교를 믿지 않는 이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교는 물질주의가 팽배해 정신이 메말라가는 현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종교입니다. 모두 불성을 갖고 있지만 무교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훌륭한 밭에 잡초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고된 수행 이전에 모두가 발심할 수 있는 밑거름을 뿌리도록 쉬운 불교전파에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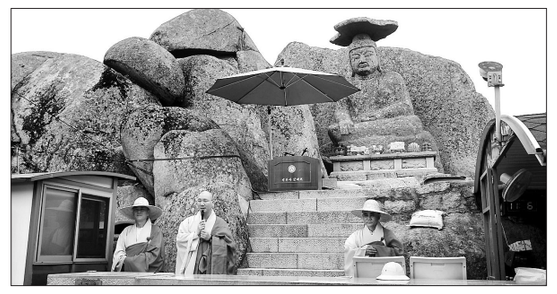
한편 김상규 신임회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공불련은 지난해 10월 열린 정기총회서 신임회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김상인 9대 회장이 그동안 회장직을 맡아왔다.

1961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김상규 회장은 마산고등학교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재정업무관리관을 거쳐 2014년 제32대 조달청 청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지난 2월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회장은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선본사, 약사재일 특별법회

7월 11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초청



팔공산 선본사(주지 법성)는 7월 11일 갓바위서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을 초청해 약사재일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엔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경선 스님은 "땀 흘려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며 "각자 기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의 성취는 간절함에 따른 것이니, 분별심과 망상이 일어나는 마음자리서 참나 주인공을 일심으로 찾아 스스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일체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로 어우러져 그곳이 바로 불국정토가 될 것"이라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성역화·기무사 불사금 1억 쾌척

남해 보리암, 7월 11일 아름다운동행에



남해 보리암(주지 능원)은 7월 11일 성역화 불사 및 기무사 법당불사 지원금 각 5,000만원씩 총 1억 원을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전달했다. 이날 자리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 기무사 원상 법사 및 이보수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불교국제개발協, 상반기 워크숍

7월 8~9일, 경기 양평서… 하반기 계획 논의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이하 불국회)는 7월 8~9일 경기도 양평 한국문화의집서 상반기 워크숍 '힐링캠프'를 실시했다. 이 자리엔 젊은부처들·조계종사회복지재단·지구촌공생회 등 총 4개 단체 실무자 12명이 참석해 2016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박아름 기자

총지종 원로 스승 법장화 지수 원적

12일, 법체 연구용 기증



불교총지종 원로 스승이자 前 중앙종회의장 법장화 지수〈사진〉가 7월 12일 원적에 들었다. 세수 90세, 법랍 45년. 유가족 대표는 아들 박병우 씨다.

불교총지종은 법장화 지수의 영단을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6호에 마련하고, 지난 14일 영결 추선불사를 거행했다.

원정대성사와 함께 총지종의 입교개종(立敎開宗)을 함께 한 법장화 지수는 평소 온화한 성품과 꼼꼼한 일처리로 종단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진언염송을 평생의 수행으로 삼고 교화에 매진한 법장화 지수는 수행의 도구로 삼았던 법체마저 중생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과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함으로 완전한 무소유와 공의 세계에 들었다.

신성민 기자

"신도교육으로 마음가짐 다질 터"

이금석 제 4대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



"신도회의 기본은 신도로서 갖춰야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신도회 역시 신도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한 것처럼 직할교구신도회도 신행을 다질 수 있는 교육에 나서겠습니다."

제4대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에 이금석(61, 공덕심·사진) 노적사 신도회장이 선출됐다. 이 회장은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직할교구신도회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추대됐다. 임기는 8월 15일부터 2018년 8월 14일까지 2년이다.

이 회장은 "올해 성역화불사 및 승려복지기금 마련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지만 우선적으로 불자로서의 마음자세를 다지는 신도교육에 주력하겠다"며 "아직 미숙하지만 그동안 직할교구신도회에서 오랫동안 소임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신도회 출범 이후 부회장과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어 조직 내부적으로 차기회장에 적합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그는 6년간 직할교구신도회가 전개해온 사업을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신도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내부평가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임기 내에 사업별 성과를 정리해 미진한 사업은 자제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면서 "회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할교구신도회는 이날 최명자 도선사 신도회장과 이은임 봉국사 신도부회장을 제4대 감사로 선출했다.

윤호섭 기자



제주불교 代母 이의열 보살 타계

7월 13일 서귀포서 영결식… 혜일 스님, 왕생극락 기원

1918년 서귀포 법정사서 항일운동을 펼친 방동화 스님을 시봉하고, 제주불교 중흥조인 안봉려관 스님에게 불교를 배우며 8남매를 불자로 길러낸 이의열(원만화) 보살이 7월 9일 숙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104세. 이의열 보살의 영결식은 13일 서귀포장례식장에서 거행됐다.

태고종 중앙선관위원장 혜일 스님(서울 법륜사·제주 정방사 주지)의 모친이기도 한 이의열 보살은 8세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법화사를 다니며 불연을 쌓았다. 절에 먹을 것이 없으면 직접 탁발에 나서 사찰운영을 도왔고, 다른 불자들과 시주금을 모아 광명사와 정방사를 창건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 보살 자녀와 손주들은 사찰 청년회장과 불교대학 동문회장 등 불교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혜일 스님과 정방사 신도 등은 12일 정방사서 이의열 보살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 자리서 혜일 스님은 "어머니 원만화 보살은 불심이 지극했다. 늘 부처님과 스님을 위해 공양했던 분"이라며 "특히 어머니는 일생을 서귀포불교를 위해 헌신했던 보살"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7월 30일 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